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불안: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역할*

이 소 담¹⁾

신 나 나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82명(남: 142명, 여: 1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관관계와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여,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불안을 더 경험하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을 통해 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은 낮았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유능성과 관계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 시기 통제가 아닌 자율성 증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율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실제적인 양육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불안, 대학생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nanashin@ewha.ac.kr)

I. 서 론

교육 연한의 증가, 변화된 산업 및 사회 구조, 취업의 어려움 등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 대학생들의 심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오혜영, 2018). 특히 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다양한 정서, 사회문제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18~2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비율이 2001년 9.1%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진아, 2016). 또한 실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유병기, 2010; 장수미, 경수영, 2013)에서도 이 시기 다양한 스트레스원으로 인한 불안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인 동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Stevens, Bardeen, & Murdock, 2015). 불안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자 위협상황에 대한 경고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응적 수준의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불안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부적응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경우에는 부적응이 야기될 수 있으며,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상황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특히 성인기 초기 사회적, 교육적, 전문적 환경에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이 시기 주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Manzeske & Stright, 2009),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성인일수록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불안 수준에 초점을 두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불안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성인기 초기에 부모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Aquilino, 2006). 따라서 부모는 대학생 자녀와 상호작용 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Desjardins & Leadbeater, 2017), 그렇지 못할 경우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부정적인 발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통제 중에서도 이 시기 더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심리적 통제로, 심리적 통제는 사고 과정, 자기표현, 정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같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지만,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대학생 시기에도 부모는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

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Fingerman, Miller, Birditt, & Zarit, 2009). 하지만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독립과 자율성의 욕구가 훨씬 더 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 시기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더 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우울 및 불안(신희수, 안명희, 2013), 사회불안(이경희, 홍혜영, 2015;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 특성불안(Seibel & Johnson, 2001), 대인불안(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 시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문제 해결력(김유림, 강지현, 2014), 정체성 형성(Luyckx, 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 & Berzonsky, 2007), 정서 조절(Manzeske & Stright, 2009), 내면화 문제(Costa, Soenens, Gugliandolo, Cuzzocrea, & Larcán, 2015) 등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지만, 이 시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다른 영향을 발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부모의 양육태도로 함께 묶어 살펴보거나(김유림, 강지현, 2014; 박영신, 2009; 이경희, 홍혜영, 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만 초점을 두었다는(신희수, 안명희, 2013)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Luebbe, Bump, Fussner, & Rulon, 2014)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특히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다르게 지각할 경우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대학생 시기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측정하여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더해, 이러한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제 3의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귀인양식(Schleider, Vélez, Krause, & Gillham, 2014),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적 자기표상(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기본심리욕구(Costa et al., 2015) 등에 의해 매개됨을 밝혔다. 이 중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는 인간이 타고난 성장경향성과 통합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Deci & Ryan, 1985). 이 중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 구조화하고 조절하는 개인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되는 느낌을 의미하는 타율성과는 반

대되는 개념이다(Ryan & Deci, 2008). 유능성은 개인의 능력을 표현하고, 확장하고,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효율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능력에 적절한 과제에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증진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8).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애착을 추구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개인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때 만족된다(Ryan & Deci, 2008).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자기결정성이란 외부의 강화나 압력 없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일컫는다(Deci & Ryan, 1985). 자기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내재적인 동기의 발현이기 때문에,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경우 내재적인 동기가 증진되어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보이게 된다. 반면 외부로부터의 통제 경험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저해하여 외재적 동기를 발달시키고, 그 결과 낮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통제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외부적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Deci & Ryan, 2000), 이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마은애, 손은정, 2014; 박지은, 설경옥, 정희원, 2016; 한송이, 장석진, 2015; Costa et al., 2015)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은애와 손은정(2014)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Costa, Cuzzocrea, Gugliandolo, & Larcana, 2016)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여부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Ryan과 Deci(2000b)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때 안녕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신병리를 겪게 되거나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개인의 안녕감 및 역기능적 문제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경우에는 안녕감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재선, 서은국, 2015; 신현숙, 오민근, 2016; 유성경, 김유진, 2015; 이수진, 2011; Deci et al., 2001; Emery, Heath, & Mills, 2016). 예를 들어, Emery 등(2016)은 낮은 수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성인 초기의 자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미국과 불가리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Deci et al., 2001)에서도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구재선, 서은국 2015)가 보고되었는데, 대학교 신입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안녕감, 삶의 만족,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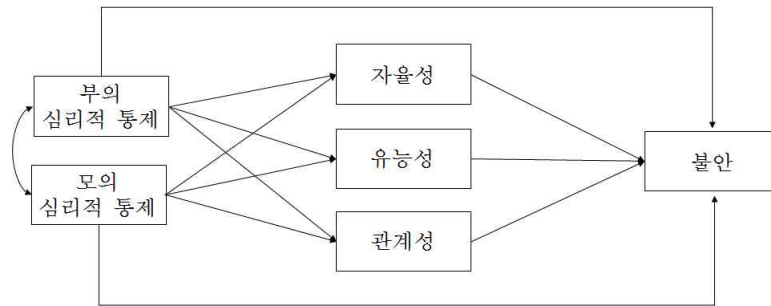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 통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개인의 적응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신현숙, 오민근, 2016; 유성경, 김유진, 2015; 이수진, 2011; 이진호, 양명환, 2012)이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기보다는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에 초점을 두으로써,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기본심리욕구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 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탈리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osta et al., 2015)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지각할수록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고 불안을 포함한 내면화 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통제와 유사한 변인이라 할 수 있

는 헬리콥터 양육을 살펴본 연구(Schiffirin et al., 2014)에서도 헬리콥터 양육이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과 유능성의 불만족을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만족이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을 분리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2명이다(표 1 참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42명(50.4%), 여학생이 140명(49.6%)으로 유사한 비율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1.22세($SD = 2.06$)로, 연령의 범위는 만 18~25세이었다.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가 대부분(182명, 64.5%) 혹은 부분적(100명, 35.5%)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98명(70.2%)

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또는 하숙이 55명(19.5%), 기숙사 거주 중이 27명(9.6%)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51~60세가 199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40~50세가 67명(2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40~50세가 14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51~60세가 132명(46.8%)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130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73명(25.9%)으로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115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이 20명(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82)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u>거주형태</u>		<u>경제적 상태</u>	
부모님과 함께 거주	198 (70.2)	대부분의 도움을 받는다	182 (64.5)
자취, 하숙	55 (19.5)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100 (35.5)
기숙사	27 (9.6)		
기타	2 (0.7)		
<u>아버지 연령</u>		<u>어머니 연령</u>	
40~50세	67 (23.8)	40~50세	141 (50.0)
51~60세	199 (70.6)	51~60세	132 (46.8)
61~70세	13 (4.6)	61~70세	7 (2.5)
<u>아버지 교육 수준</u>		<u>어머니 교육 수준</u>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4 (1.4)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 (0.7)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7 (2.5)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7 (2.5)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73 (25.9)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115 (40.8)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19 (6.7)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17 (6.0)
대학교 졸업	130 (46.1)	대학교 졸업	115 (40.8)
대학원 졸업	43 (15.2)	대학원 졸업	20 (7.1)

2. 조사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최명진(2010)이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개발자인 Barber(1996)가 총 16 문항 중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은 8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제한한 8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대화의 주제를 바꾸신다.',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3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 .81, 어머니 .82이었다.

기본심리욕구 만족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Deci와 Ryan(200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General Version)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번안,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자율성의 경우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등이, 유능성의 경우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등이, 관계성의 경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더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자율성이 .75, 유능성이 .81, 관계성이 .82이었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개발한 Beck의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Kwon(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AI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가끔 몸이 저리고 쭉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자주 손이 떨린다.', '불안한 상태에 있다.', '자주 소화가 잘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았

다(0점), '조금 느꼈다(1점)', '상당히 느꼈다(2점)', '심하게 느꼈다(3점)'의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절차

본 조사는 2016년 9월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자료수집은 국내에 위치한 대학교의 대규모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담당교수의 동의하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온라인 자료수집은 해당 대상이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158부, 온라인 224부로 총 382부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연구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28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다.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전,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기본심리욕구 만

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의 계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팬텀변인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불안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변인의 왜도는 -0.15~1.70 첨도는 -0.64~3.46으로 나타나 왜도가 2이하, 첨도는 7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대부분의 변인들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38, p < .0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 = .38, p < .001$) 모두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은 불안을 더 경험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불안 간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유능성을 제외한 자율성($r = -.45, p < .001$)과 관계성($r = -.16, p < .01$)이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대학생 자녀가 자율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불안 간의 상관관계 및 각 변인의 기술통계 ($N = 282$)

변인	1	2	3	4	5	6
심리적 통제						
1. 부	-					
2. 모	.52***	-				
기본심리욕구						
3. 자율성	-.31***	-.33***	-			
4. 유능성	-.03	.03	.40***	-		
5. 관계성	-.10	-.10	.39***	.47***	-	
불안						
6. 불안	.38***	.38***	-.45***	-.08	-.16**	-
M	1.47	1.46	3.12	2.86	3.29	1.39
SD	0.40	0.42	0.47	0.51	0.47	0.41
왜도	1.10	1.13	1.70	-0.15	0.01	-0.35
첨도	0.98	0.80	3.46	-0.64	0.45	-0.25

** $p < .01$. *** $p < .001$.

성과 관계성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불안을 더 경험하였지만,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불안 경험과는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31, p < .0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 = -.33, p < .001$) 모두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에 대한 만족이 낮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과 관계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2. 경로모형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설정한 모형은 자유도가 0인 완전적합모형이기 때문에 적합도는 산출되지 않았다. 측정변인 간 경로를 살펴 본 결과(표 3, 그림 2 참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19, p < .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16, p < .01$)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은 높은 불안을 보였다. 간접적 효과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19, p < .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24, p < .001$)는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 = -.35, p < .001$).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낮은 자율성을 보였으며, 낮은 자율성을 경험할수록 높은 불안을

표 3.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282)

	<i>B</i>	β	<i>SE</i>	<i>C.R.</i>
부의 심리적 통제 → 불안	.19	.19	.06	3.09**
모의 심리적 통제 → 불안	.16	.16	.06	2.64**
부의 심리적 통제 → 자율성	-.22	-.19	.08	-2.86**
부의 심리적 통제 → 유능성	-.07	-.05	.09	-.75
부의 심리적 통제 → 관계성	-.06	-.05	.08	-.73
모의 심리적 통제 → 자율성	-.26	-.24	.07	-3.65***
모의 심리적 통제 → 유능성	.06	.05	.08	.77
모의 심리적 통제 → 관계성	-.08	-.08	.08	-1.09
자율성 → 불안	-.31	-.35	.05	-5.75***
유능성 → 불안	.06	.07	.05	1.17
관계성 → 불안	-.02	-.02	.0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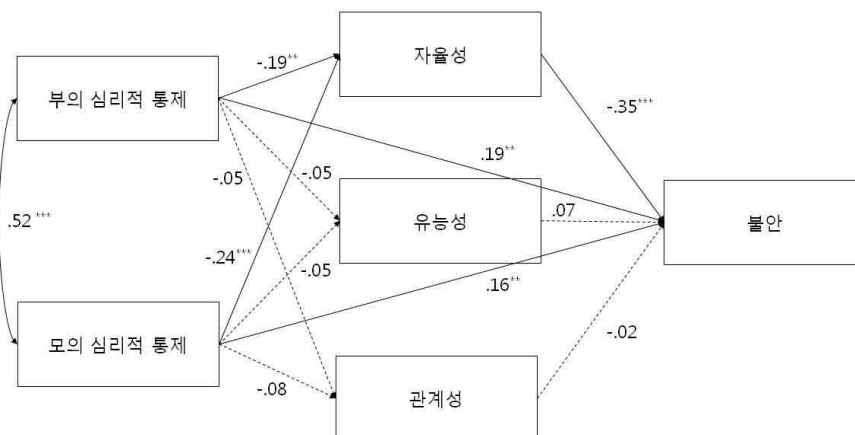
** $p < .01$. *** $p < .001$.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주 2.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오차 간 공분산이 설정되었으나, 간결성을 위하여 모형에는 오차를 포함하지 않았음

** $p < .01$. *** $p < .001$.

느꼈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성과 유능성을 통해 불안에 가는 경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 AMOS의 경우 모형에 다수의 매개변인이 동시에 포함될 경우 각각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대신 전체 간접효과만 제시되기 때문에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율성에 대한 만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06, p < .01, 95\% \text{ CI} = .03, .15$)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08, p < .01, 95\% \text{ CI} = .04, .15$)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성과 관계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욕구가 큰 시기이기도 한데, 이러한 욕구가 부모의 통제와 맞닥처 좌절될 경우 부적응적인 경로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는 불안을 더 경험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사회불안(변경란, 2015;

안소연, 2016; 이경희, 홍혜영, 2015)과 대인불안(류아영 등, 2014)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통제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이소미, 2002), 대인불안(구세정, 송미경, 2018), 수행불안 및 상호작용 불안(김은정, 201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기뿐 아니라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통제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nzeske & Stright, 2009).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건강한 성인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애정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바램이나 기준,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자녀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그들의 내적인 욕구나 기준, 그리고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율성에 대한 욕구 만족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덜 충족되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낮은 자율성을 보이고(김은혜,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율성 욕구가 좌절된다는 선행 연구(마

은애, 손은정,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정희원, 2015; 조윤희, 2016)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다양한 환경과 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많다. 즉 학교 및 교외 활동을 통해 유능성과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성은 그 개념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아온 경우 외부적 조건이나 압력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외적 동기를 활성화 시킨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a). 따라서 자율성을 통제 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가치나 필요성에 기반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자율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대학생은 불안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선행연구들도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안(조영미, 2012)과 우울(마은애, 손은정, 2014; 이동미, 201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유능성과 관계성에 대한 만

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모두가 사회불안 및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조영미, 2012),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유능성만이 불안(김수진, 2014)이나 부정적 정서(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이 아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측정하였으나,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정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인 사회불안을 다루거나,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으로써 불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 자율성이 특히 요구되는 대학생 시기에 이에 대한 욕구가 좌절될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을 매개로 낮은 행복감을 야기한다는 연구(권미나, 이진숙, 2015)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매개로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전숙영, 2012)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sta et al., 2015)와 함

게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저해하여 불안 및 여러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저해할 수 있고 (Deci & Ryan, 2000),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Ryan과 Deci(2000a)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자율성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모의 곁을 떠나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대학생 자녀들에게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자녀의 발달적 욕구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에 부모-자녀 간 관계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불안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걱정사항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다루거나 불안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인지·행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개인 내적 요인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대상 불안 감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인지나 정서뿐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방안이 함께 활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대학생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심리적 통제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가 실제 행하는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여 부모와 자녀 간 인식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선행연구(Wijsbroek, Hale, Raaijmakers, & Meeus, 2011)에 따르면 범불안과 분리불안 경향성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연구인 본 연구의 특성상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불안을 측정하여 두 변인 간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율성에 대한 만족과 불안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어 자율성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만족과 불안 간 방향성 또한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만을 다루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역기능적 발달을 살펴보는 데 무리가 있다.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응적 행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Deci & Ryan, 2000)을 고려해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포함하여 기본심리욕구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이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자 자율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할 시기에 놓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지속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 태도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가 사회불안이나 대인불안과 같은 특정 불안을 다루거나 내면화 문제의 하위 요인으로 불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특정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기본심리욕구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Soenens와

Vansteenkiste(2010)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본심리욕구 중 특히 자율성에 대한 욕구 충족의 중요성이 강조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율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세정, 송미경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1-21.
- 구재선, 서은국 (2015). 청소년의 내재적 가치 지향과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미래 행복의 관계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317-338.
- 권미나, 이진숙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589-610.
- 김수진 (2014). 중년여성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림, 강지현 (2014).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4), 1-24.
- 김은정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 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삶의 만족

- 도의 관계: 자율성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2(3), 135-155.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 박영신 (2009). 개인적 및 관습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사회과학담론과정제*, 2(1), 145-164.
- 박지은, 설경옥, 정희원 (201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 성별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113-133.
- 변경란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오민근 (2016). 대학생의 심리적 욕구와 주관적 안녕감. *교육연구*, 39, 85-106.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소연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영 (2018). 대학(원)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 국회교육희망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국회세미나 자료집, 1-23.
- 유병기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1(1), 33-43.
- 유성경, 김유진 (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이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53-75.
- 이경희, 홍혜영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행경*, 13(4), 101-114.
- 이동미 (2016). 가족분화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율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이진호, 양명환 (2012). 운동선수가 지각한 사회적 환경 요인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서 기본적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

- 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59-75.
- 장수미, 경수영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518-546.
- 전숙영 (2012).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4), 61-79.
- 전진아 (2016). 지표로 보는 한국여성의 정신건강. *보건복지포럼*, 235, 47-60.
- 정희원 (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애착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 (2012).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심리적 욕구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희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감독 및 심리적 통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송이, 장석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459-479.
-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103-11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서울: 학지사.
- Aquilino, W. S. (2006). Family relationships and support system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 193-2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 Costa, S., Cuzzocrea, F., Gugliandolo, M. C., & Larcan, R. (2016).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Child Indicators Research*, 9(4), 1059-1076.
- Costa, S., Soenens, B., Gugliandolo, M. C., Cuzzocrea, F., & Larcan, R. (2015). The mediating role of experiences of need satisfaction in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nalizing problems: A study among Ital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4), 1106-111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942.
- Desjardins, T., & Leadbeater, B. J. (2017). Changes i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ulthood: Direct and indirect associations with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djustment. *Emerging Adulthood*, 3(3), 177-190.
- Emery, A. A., Heath, N. L., & Mills, D. J. (2016).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emotion dysregulation, and non-suicidal self-injury engagement in young adults: An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3), 612-623.
- Fingerman, K. L., Miller, L., Birditt, K., & Zarit, S. (2009). Giving to the good and the needy: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220-1233.
- Kwon, S. 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uebke, A. M., Bump, K. A., Fussner, L. M., & Rulon, K. J. (2014).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s to adolescent anxiety through deficits in emotion regula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5(5), 565-576.
- 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 Berzonsky, M. D.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 Manzeske, D. P., & Stright, A. D. (2009). Parenting styles and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4), 223-229.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yan, R. M., & Deci, E. L. (2000a).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00b).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 Ryan, R. M., & Deci, E. L.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personalit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654-678). New York: Guilford Press.
- Schiffirin, H. H., Liss, M., Miles-McLean, H., Geary, K. A., Erchull, M. J., & Tashner, T. (2014). Helping or hovering? The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on college students'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3), 548-557.
- Schleider, J. L., Vélez, C. E., Krause, E. D., & Gillham, J. (2014). Perceived psychological control and anxiety in early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ttributional sty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8(1), 71-81.
- Seibel, F. L., & Johnson, W. B. (2001). Parental control, trait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8(2), 473-480.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 Stevens, E. N., Bardeen, J. R., & Murdock, K. W. (2015). Parenting behaviors and anxiety in young adults: Effortful control as a protective factor.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6(3), 170-176.
- Wijsbroek, S. A., Hale III, W. W., Raaijmakers, Q. A., & Meeus, W. H. (2011). The direction of effects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self-reported GAD and SAD symptom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0(7), 361-371.

1 차원고접수 : 2018.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8. 05. 21.

최종게재결정 : 2018. 05. 2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Lee, Sodam

Shin, Nana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anxiety were examined. A total of 282 undergraduate students (142 males, 140 female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anxie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rect paths fro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anxiety. Undergraduate studen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experienced more anxiety. Second, an indirect path passing through autonom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that is, individuals who perceived high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of autonomy needs, and as a result, experienced more anxiety.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s continue to play an influential role during undergraduate years and that they need to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to fulfill needs for autonomy. These results could be used in developing an autonomy enhancement program and in providing practical parenting guidelines for parents of undergraduate students.

Keywords: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anxiety, undergraduate students